

古文獻의 保存處理에 관한 事例研究

- 長興 寶林寺 四天王像에서 발견된 『金剛經三家解』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Preservation Treatment of Ancient Documents - Focusing on the 「Keumganggyung-samgahae」 from the Four Devas of Borimsa, Buddhist Temple at Jangheung County -

노기춘(Ki-Chun Roh)*

< 목 차 >

- | | |
|------------------------|----------------------|
| 1. 緒論 | 4. 『金剛經三家解』의 保存處理 過程 |
| 2. 四天王像의 腹藏佛書 | 4.1 修補方針 |
| 3. 『金剛經三家解』의 保存處理 前 狀態 | 4.2 保存處理過程 |
| | 5. 結論 및 提言 |

초 록

이 연구는 1995년 장흥 보림사의 사천왕상에서 발굴된 복장불서 가운데 보물 제45-9 호로 지정된 『金剛經三家解』를 대상으로 서지학의 관점에서 지류문화재의 보수 및 보존처리 과정을 다룬 연구 논문이다. 보존처리 전 형태적 특징을 보면, 책의 크기는 가로 25.3cm, 세로 38.9cm, 두께 1.5cm, 전체 면수는 58장, 紙質은 황갈색의 藥精紙로 확인되었다. 보존처리 전 『金剛經三家解』의 상태는 四天王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사천왕상에 덧붙이 스며들어서 책의 바깥부분에 해당하는 장은 비교적 오염이 심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일부 장은 갈색으로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版心の 下魚尾와 書根 부분이 일정한 모양으로 박락 현상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金剛經三家解』의 보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수리방침의 주안점은 本紙의 현상 유지를 우선원칙으로 삼되, 반드시 후세에 재수리가 가능하도록 수리방침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방침을 정하였다. 『金剛經三家解』의 보존처리 과정은 1) 제1차 세척과정, 2) 판본 보완 및 보수 과정, 3) 제2차 세척 및 보존처리 과정, 4) 제단 및 제책과정, 서두 및 표갑의 제작 등으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金剛經三家解』의 수리 결과, 수리 전 책의 외형은 가로 25.3cm, 세로 38.9cm, 두께 1.5cm, 판본 58장(본문 57장, 보조지 1장)이었으나, 수리 후 가로 25.8cm, 세로 39.4cm, 책의 두께는 1.9cm, 판본 64장(본문 57장, 보조지 1장, 결표지 앞과 뒤 각각 보호지 앞과 뒤 각각 2장)으로 가로 0.5cm, 세로 0.5cm, 두께 0.4cm, 판본 6장이 증가하는 등의 외형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주제어 : 寶林寺, 四天王像, 金剛經三家解, 保存處理

Abstract

This research studied the preservation treatment of the papered literature, the national treasure 745-9 「Keumganggyung-samgahae」, discovered in 1995 from the Four Devas of Borimsa, Buddhist Temple at Jangheung County, in the viewpoint of the bibliography. The overall features of the 「Keumganggyung-samgahae」 were of 25.3cm width, 38.9cm height, 1.5cm depth, 58 pages and of high-fine yellow-brown colored reef paper. The book was ruined physically in the shape and color. The covers of the book were deeply stained by the permeated rain and some internal pages were changing into brown color by corrosion. The treatment policies were; maintaining the status quo and capable repeated treatment. And the preservation treatment was done in the sequences of 1) 1st cleaning process, 2) repairing and correcting, 3) 2nd cleaning and preservation, 4) cutting, binding the book and making the envelope and wood box. The post-preservation features of 「Keumganggyung-samgahae」 were; total 64 pages and the size being 25.8 cm width, 39.4cm of length, and 1.9cm of depth.

Key Words : borimsa, the four devas, keumganggyung-samgahae, a conservation treatment

*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kchliboh@chol.com)

· 접수일 : 2004. 8. 16 · 최초심사일 : 2004. 9. 1 · 최종심사일 : 2004. 9. 8

1. 緒論

紙類文化財 가운데 선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기술되어 기층사회의 역사적 실상을 밝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고문헌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의 토양에서 자란 양질의 닥(楮)을 원료로 하여 만든 훌륭한 종이와 뛰어난 인쇄술, 그리고 冊의 裝幀 등등 기술과 정신의 종합적 산물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습기와 충해 등에 훼손되어 최근에 保存, 補修處理 과정을 거친 고문헌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紙類文化財의 보수, 보존처리 과정은 오랜 기간동안의 경험적 필요성이 증시되는 전통적인 방법이 유지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¹⁾, 과거 문화재보존의 초기단계에서는 한사람의 전문가가 지류, 목재, 금속 등 여러 유형의 문화재들을 함께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과정들이 점점 전문화되고 체계화됨에 따라 각 유형의 문화재 보존처리 역시 좀더 심도있게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는 실정이다. 이는 곧 문헌정보학의 분야에서 살펴볼 때 고문헌의 내용과 형태적 특징 등 책에 관해 폭넓은 지식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서지학분야는 어떤 타학문 분야들 보다 책에 대해 가장 많은 지식이 축적된 학문분야이며, 서지학 전공자들은 책에 관해 가장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보존처리의 전문화, 세분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류 문화재의 보수 및 보존처리 분야는 서지학에서 다루고 있는 학문분야를 바탕으로 하여 서지학의 외연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²⁾

이 논문의 연구자는 1995년부터 장흥 보림사의 복장불서 발굴조사를 필두로 영광 불갑사, 해남 대흥사, 순천 송광사, 승주 선암사, 오대산 월정사, 해남 녹우당, 장흥 오천정사 등 사찰과 종가에서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고문헌의 발굴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연이 깊어서인지 보림사와 영광 불갑사 복장불서의 보수 및 보존처리를 맡고 있는 〇〇〇의 紙類文化保存研究所 보존팀 일원으로 참여하여 보림사에서 발굴된 전적과 많은 인연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보존연구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보수 및 보존처리를 한 보림사의 복장불서 가운데 1997년 6월 12일 국가 유형문화재 보물 제745-9호로 지정된 『金剛經三家解』를 대상으로 서지학의 관점에서 보존처리 전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보존처리과정에서 밝혀진 몇 가지 사실

1) 일본은 1910년대에 이미 法隆寺 벽화의 조사연구와 보존수복을 위해 自然科學的 방법을 도입하였다고 하며, 특히 1952년 처음으로 '保存科學(Conservation sci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사와다 마사아키(澤田正昭), 문화재보존과학개설, 金聖範·鄭光龍 共譯(서울: 서경문화사, 2000), pp.23~30.]
 2) 千惠鳳은 '韓國書誌學'에서 形態書誌學의 제분야 가운데 表裝法, 表紙 紋樣내기 褙接法, 褙裝法, 補修法 등을 서지학의 일분야로 정의하였다.[千惠鳳, 韓國書誌學(서울: 민음사 2002), p.58.]

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단 이 논문은 보존처리 기술에 일천한 서지학 전공자로서 보존처리 과정의 실증적인 내용을 주로 서술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며, 보존처리의 여러 과정을 정량화 하는 등의 과학적인 보존처리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후일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2. 四天王像의 腹藏佛書

보림사의 사천왕상은 호법·호국·호악의 존재로서 中宗 10년(1515)에 조성되었고, 이후 현종 9년(1668)과 正祖 1년(1777) 2차에 걸쳐 중수되었다. 그리고 사천왕상에 복장된 불서는 모두 3차에 걸쳐 발굴되었는 바, 1차 발견은 1971년 10월 24일 실시된 사천왕상의 보수공사 작업 도중에 발견되었으며, 이때 사천왕상의 몸통에서 150여종의 불서가 발견되었고, 그 가운데 38종의 고서목록이 작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체계적인 정리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³⁾ 2차 발견은 1995년 순천대학교 박물관팀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때 사천왕상 4구 모두 등뒤에 있는 복장구멍이 찢려있어 이미 몸통에 있는 복장물은 분실되고 없었으며, 다만 몸통 바닥에 전적류의 찌꺼기만 이물질 등과 남아 있었다. 이 복장구멍을 통하여 내부의 결구수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희미하게 팔 부분에 책들이 들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西方廣目天王의 경우 몸통에서 팔로 이어지는 부분은 터져 있어 이곳에 있었던 복장물 역시 이미 도난 당하고 없었다. 나머지 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팔굽 위와 아래에 복장물을 넣고 막은 직사각형의 복장구멍이 있었고, 다리에도 무릎 위와 아래, 그리고 발바닥에 복장물을 넣고 막은 직사각형의 복장구멍이 있었다. 이들 직사각형 복장막을 판을 들어내고 보니 전적류의 복장물이 빈틈 없이 꽉 차 있었는데, 4구의 사천왕상에서 모두 48종(판본의 종수는 125종) 203책이 발견되었다.⁴⁾⁵⁾ 3차 발견은 국내에 현존하는 목조 사천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판명되어 1997년 6월 12일 보물 제1254호로 지정된 사천왕상을 2001년 5월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해체 보수하는 과정에서 무릎아래에 복장되었던 전적 29종 145책이 추가로 발견되었다.⁶⁾

그러면 이들 불서들을 언제 사천왕상에 복장하였는가? 사천왕상이 조성되었던 중종 10년

3) 崔仁善, 迦智山 寶林寺(順天大學校博物館 迦智山 寶林寺, 1995), p.43.

4) 宋日基, “長興 寶林寺 四天王像의 腹藏佛書考,” 伽山學報, 第6號(1997, 6), pp.95~100; 崔仁善, 迦智山 寶林寺(順天大學校博物館·迦智山 寶林寺, 1995), pp.42~43.

5) 자세한 불서목록은 宋日基 교수가 작성한 天王門 木造 四天王像 腹藏의 佛書目錄을 참고하기 바람 [崔仁善, 迦智山 寶林寺(順天大學校博物館 迦智山 寶林寺, 1995), pp.253~285.]

6) 송일기, 김희태,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 복장불서 조사보고,”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지정조사 보고서, 2(2003, 7-8), pp.3-39.

(1515)에 이들 불서들을 복장하였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천왕상을 중수한 현종 9년(1668) 또는 正祖 1년(1777)에 이들 불서들을 복장하였는가? 복장시기에 관련된 이러한 의문은 造像記가 발견되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몸통 속에서 발견된 복장물이 유실되고 없는 상태에서 복장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복장불서의 간행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복장불서의 간행시기를 분석함으로써 대강의 복장시기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복장불서의 간행시기를 분석해 본 결과, 1995년 2차로 발견된 복장불서 가운데 최고본은 建文元年(正宗 1년: 1399)에 지리산 德奇寺에서 개관된 『高峰和尚禪要』이며, 가장 늦게 간행된 판본은 청나라 乾隆 29년(1764) 충청도 덕산 가야산 伽倻寺에서 개간된 『妙法蓮華經』 언해본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01년 무릎아래에서 3차로 발견된 복장불서 가운데 최고본은 刊記面이 결락되어 있지만 1431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金剛般若波羅密經』이고, 가장 늦게 간행된 판본은 康熙 19년 庚申(1680) 妙香山 普賢寺에서 개간한 『誠初心學入文』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2차와 3차에 걸쳐 발견된 복장불서 가운데 최후본은 1764년 가야산 伽倻寺에서 개간된 『妙法蓮華經』으로 밝혀졌으며, 이 시기는 <寶林寺天王金剛重新功德記>에 수록된 사천왕상의 2차 중수가 있었던 정조 1년(1777)과는 13년의 시차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보림사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복장불서는 사천왕상의 2차 중수가 있었던 정조 1년(1777)에 복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⁷⁾

한편 1995년 2차로 발견된 48종 203책의 복장불서와 2001년 3차로 추가 발견된 29종 145책은 현재 국가 유형문화재 또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로 모두 지정되었는데, 世祖 5년(1459) 正音廳에서 간행한 『月印釋譜』와 世祖 8년(1462) 刊經都監에서 간행한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卷9-10은 1997년 6월 각각 보물 745-9호와 보물 1252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成宗 13년(1477) 內需司에서 간행한 『金剛經三家解』 卷1은 2002년 8월 보물 772-3호로 지정되었으며 그 밖의 불서는 12건으로 나누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94호~제205호로 지정되어 현재 〇〇〇의 紙類文化保存研究所에서 모두 보존처리 중에 있다. 이 가운데 보물 772-3호로 지정된 『金剛經三家解』는 仇摩羅什이 한문으로 번역한 『金剛般若波羅密經』(金剛經 또는 金剛般若經)의 본문과 冶父 道川の 頌, 豫章 宗鏡의 提綱, 涵虛堂 得通의 說誼 등 3家の 주해를 국역하여 조선 성종 13년(1477)에 궁중에 활자로 인출한 책으로, 보림사 사천왕상에서는 전 5권 5책 가운데 권1의 1책만 발견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물로 지정된 『金剛經三家解』 가운데 본문의 낙장이 없는 가장 완전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책이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金剛經三家解』를 중심으로 서지학의 관점에서 보존처리 전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보존처리과정에서 밝혀진 몇 가지 사실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7) 宋日基, “長興 寶林寺 四天王像의 腹藏佛書考,” 伽山學報, 第6號(1997, 6), p.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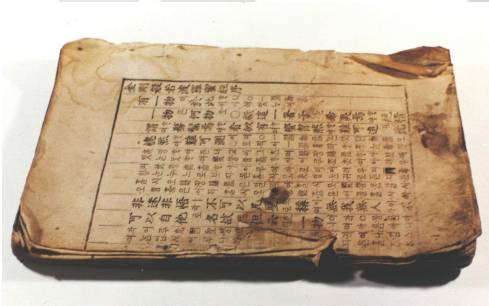
3. 『金剛經三家解』의 保存處理 前 狀態

『金剛經三家解』 언해본은 仇摩羅什이 한문으로 번역한 『金剛般若波羅密經』(金剛經 또는 金剛般若經)의 본문과 冶父 道川의 頌, 豫章 宗鏡의 提綱, 涵虛堂 得通의 說誼 등 3家の 주해를 국역하여 조선 성종 13년(1477)에 궁중에서 5권 5책으로 간행하였다. 보림사 사천왕상 복장에서 발견된 『金剛經三家解』는 5권 5책 가운데 권1의 1책만이 발견되었는데, 인출할 때 사용된 금속활자를 살펴보면, 본문은 세조 3년(1459) 한문본 오가해를 간행할 때 주조한 丁丑 大字이며 본문 다음에 구성되어 있는 涵虛堂 得通의 說誼, 冶父 道川의 頌, 宗鏡의 提綱 등은 乙亥 中字를 사용하였고, 口訣과 諺解文은 세조 7년(1461)에 『능엄경언해』를 인출할 때 주조하였던 한글 활자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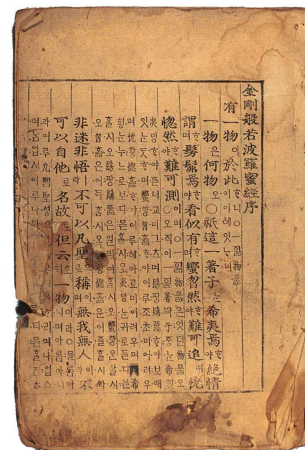
『金剛經三家解』의 형태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金剛經三家解/. -金屬活字本. -成宗 13年(1477), 1冊(卷1), 25.3×38.9 cm

四周雙邊, 半郭: 19.8×27cm, 有界, 半葉 11行15~21字, 註雙行, 魚尾 上下內向黑魚尾



<그림 1> 보수 전 『金剛經三家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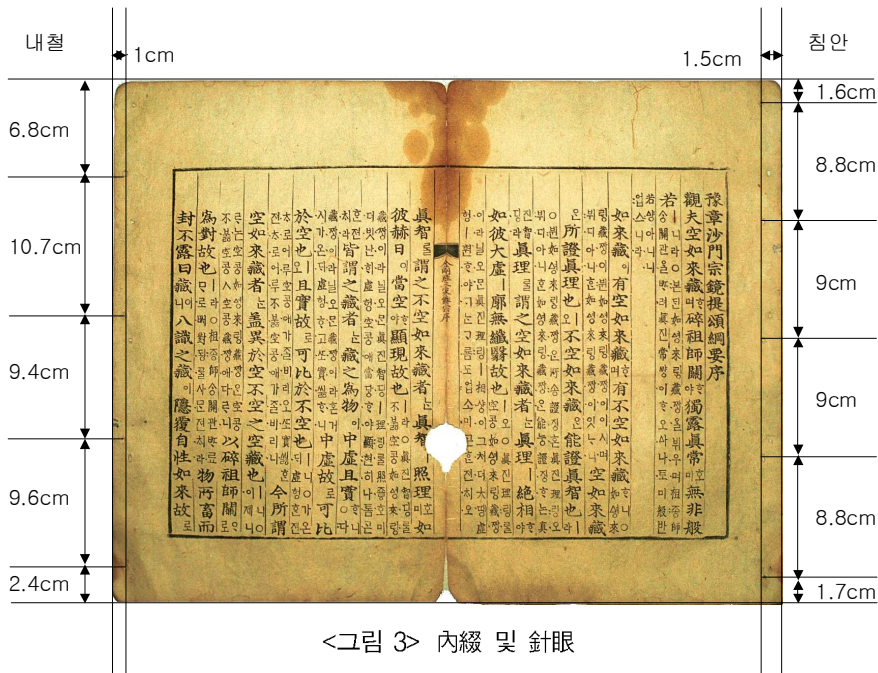


<그림 2> 보수 전 전면

발견 당시 본서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앞과 뒤의 겉표지가 없고, 장정이 해체된 채 종이심으로 內綴만 되어 있는 상태로, 특히 첫장은 내철이 분리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그림 1~2>. 책의 크기는 가로 25.3cm, 세로 38.9cm, 두께 1.5cm이며, 전체 면수는 58장(序文 22장, 本文 35장, 보조지 1장), 책의 장정은 종이심으로 내철한 다음 구멍을 다섯 개 뚫어 철한 五針眼訂法の 線裝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紙質은 조선 세조~성종 사이에 印經에 사용되었던 황갈색의 藁精紙로 확인되었다. 한편, 내철된 상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4개의 종이심과 제책을 할 때 사용된 황갈

색의 線裝 실편이 부산물로 발견되었다.

內綴의 간격과 線裝을 하기 위한 針眼의 간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3>과 같이 책의 윗부분과 첫 번째 침안은 1.7cm, 다섯번째 침안과 책의 바닥 부분은 1.6cm 첫 번째 침안과 두 번째 침안은 8.8cm, 두 번째 침안과 세 번째 침안은 9cm, 세 번째 침안과 네 번째 침안은 9cm, 네 번째 침안과 다섯 번째 침안은 8.8cm로 침안 사이는 비교적 일정한 간격을 보이고 있으며, 書背와 침안과의 간격은 1.5cm로 밝혀졌다. 그리고 裝幀을 하기 전 책의 몸통을 껴매기 위해 종이심으로 內綴한 4개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들의 간격은 6.8cm, 10.7cm, 9.4cm, 9.6cm, 2.4cm로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며, 書背와 내철 구멍간의 간격은 1cm로 침안보다 바깥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책의 장정시 겉으로 드러나는 五針眼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함으로서, 그리고 책을 펼쳤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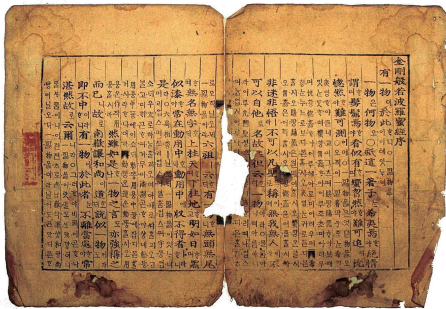


<그림 3> 內綴 및 針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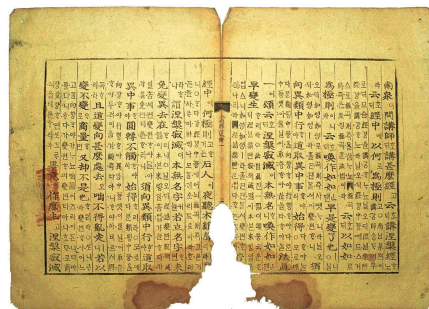
침안을 내철 구멍 안쪽에 뒀으므로 미관과 기능성을 모두 고려한 배치로 보이며,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內綴 부위는 책의 장정시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적인 점보다는 기능성을 고려하여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보존처리 전 『金剛經三家解』의 상태를 살펴보면, 먼저 책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1~10장까지를 살펴보면, 표지와 보조지가 없어 책의 가장 바깥에 노출되어 있는 1장은 版心題 및 張次가 수록되어 있는 上魚尾와 下魚尾 사이가 부식 박락되어 있고, 2~10장은 上魚尾로부터 下魚尾까지 관심의 접힌 부분이 1~2mm 폭으로 길게 박락을 보이다가 下魚尾 바로 위부분에 이르러 밑변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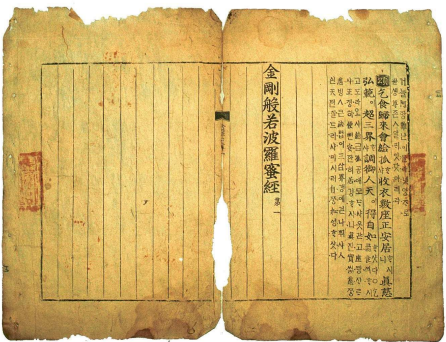
4cm 크기의 역삼각 형태로 손상되어 있으며, 특히 6장은 상어미 아래가 폭 1cm, 길이 3m 크기로 박락되어 版心題(金剛經三家解要序)가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또한 1장은 빗물 누수로 인하여 판심을 중심으로 책의 아래(書根) 일부분이 검은 색으로 부식이 진행중이며 일부 글자의 묵색이 변질 현상이 일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오염이 매우 심한 상태이다.(<그림 4> 참조) 그러나 안쪽 면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11장부터 본문의 마지막 장인 57장까지를 살펴보면, 11장부터는 下魚尾 부분이 점차 원형의 박락을 보이다가, 27장에 이르러 종모양으로, 다시 40~57장까지는 타원 형태의 박락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38장과 39장은 <그림 5>와 같이 下魚尾 부분부터 書根의 끝까지 판심을 중심으로 크게 손상된 상태이다. 한편 책의 오염상태를 살펴 보면, 책의 안쪽 부분에 해당하는 29장까지는 비교적 깨끗한 편이나, 책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30장부터 58장까지는 판심을 중심으로 책의 아래 부분(書根)이 빗물 누수로 인해 황갈색으로 변색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그림 6> 참조). 본문을 보호하고 있는 마지막 장 보조지는 바깥 사면이 모두 너덜너덜한 상태이며, 접힌 부분의 중간에서 아래부분까지 역삼각 형태로 길게 박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부분의 양면이 갈색으로 변색되고 있는 상태이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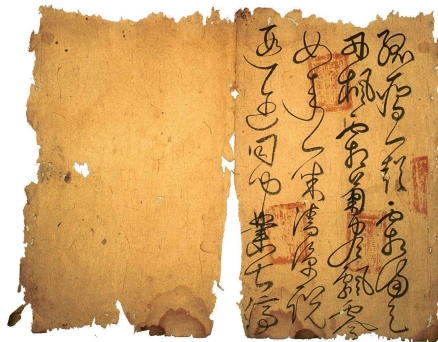
<그림 4> 1장의 상태



<그림 5> 39장의 상태



<그림 6> 57장의 상태



<그림 7> 뒷면 보조지

전체적으로 『金剛經三家解』의 상태는 四天王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사천왕상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누수에 의한 오염으로 일부 장이 변색이 진행중인 상태이며, 또한 그로 인한 부식으로 박락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4. 『金剛經三家解』의 保存處理 過程

4.1 修補方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존처리 전 조사과정을 통하여 『金剛經三家解』는 전체적으로 사천 왕문의 누수에 의한 얼룩(오염)이 발생하였고, 또한 下魚尾 아래 부분이 版心을 중심으로 일정 크기로 박락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의 보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주안점은 本紙의 현상 유지를 우선 원칙으로 삼되, 반드시 후세에 재수리가 가능하도록 기본 방침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세부방침을 정하였다.

- 수리 재료는 종이(紙)·풀(糊)·물(水) 3요소만을 채택한다.

우리나라 紙類文化財의 전통적인 재료는 종이와 풀, 그리고 물 등을 이용한 3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우리의 선조들이 사용하였던 서적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유 역시 종이, 풀, 물에 의한 재수리가 몇 차례라도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용하기 간편한 화학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들 제품들은 후일 재수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산화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약화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리 재료로는 일체 채택하지 않았다.

- 補修紙는 가능한 한 本紙와 동일한 종이를 선택한다.

박락 부위의 때움(補填)은 본지와 똑같은 조직, 똑같은 인장도를 가진 보수지가 필요하다 『金剛經三家解』의 紙質은 蕁精紙⁸⁾로 본지와 서로 다른 조직과 인장도를 가진 보수지를 사용하면 결실부분의 보전부위가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보수지를 선택할 때는 당연히 원종이의 섬유 종류, 밀도 등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8) 造紙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①입지의 선정, ②재료(닥나무)의 채취, ③자숙처리(귀리나 보릿대를 가마솥에 넣고 체로 걸러낸 재를 함께 넣은 뒤, 잿물을 가득히 붓고 두 밤과 한 낮을 끓임), ④洗滌처리, ⑤표백처리, ⑥고해처리(수분이 거의 빠지면 3~4일 동안 절구질을 하여 가루처럼 만듦), ⑦紙漿의 조제(漚槽에 가공된 재료가루와 함께 가공된 백피(楮) 또는 古紙 풀을 것을 섞어서 紙漿을 만듦), ⑧濕紙膜, ⑨수분의 제거, ⑩건조처리, ⑪표면의 가공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曹炯鎭, “古書印出用 冊紙의 實驗的 研究,” 書誌學研究, 第27集(2004, 6), pp.69-74.]

본지와 똑같은 조직, 똑같은 인장도를 가진 보수지는 만들기가 불가능하므로 대대로 전통종이를 생산해 내고 있는 〇〇〇에 의뢰하여 가능한 한 본지와 동일한 보수지를 마련하였다. 보수지는 책의 書口, 즉 版心을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길이 42cm, 폭 7mm 정도의 版心 補修紙와 책의 사면을 보완하는데 사용되는 길이 70cm, 폭 2cm 정도의 四面 補完紙, 그리고 본지의 결손부위를 수리 또는 補填하는데 사용되는 本紙 補修紙 등 3종을 미리 준비하였다.

- 풀(糊)은 최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지류문화재의 보존에 쓰이는 풀의 조건으로는 보존성과 유연성, 그리고 접착력과 가역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韓·中·日 삼국 모두 풀 제조법에 있어 水沈을 통해 단백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침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백질 함량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⁹⁾ 그러므로 지류문화재의 보존처리에 사용되는 풀은 단백질 등의 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오랜기간 동안 수침을 하고 있는데, 『金剛經三家解』의 보존처리에 사용된 풀은 5년 이상 숙성시킨 재료로 만든 풀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5년 이상 숙성시킨 재료로 만든 풀 역시 蠶(蠶)이 잠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풀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 本紙의 缺失부위는 때움질(補填)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표장에서 사용되는 뒷면을 배접하는 방식은 본지의 꺾임 등을 방지하는데 일면 장점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얇은 배접지를 사용한다고 해도 본지가 두꺼워져 본지의 특성을 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연성이 떨어져 본지가 꺾일 경우 섬유소가 부러지기가 쉽다. 그리고 본지의 뒷면을 완전히 배접하기 때문에 풀을 필요 이상 많이 사용함으로써 蠶(蠶)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缺失부위는 때움질(補填)을 원칙으로 하되 본지의 꺾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製冊시 안쪽에 얇은 다지를 삽입하는 제책 방식을 취하였다.

- 세척(cleaning)은 보수 전과 보수 후 각각 1회의 세척을 실시한다.

『金剛經三家解』는 앞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누수에 의한 오염(얼룩)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張에서는 부식으로 인해 갈색으로 변색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보수 전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습식세척을 1회 실시하였고, 보수 후 본지에 묻은 풀과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을 1회 실시하였다. 특히 물의 온도를 올림으로써 오염물의 세척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판본의 먹(墨)의 농담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척수는 미지근한 물(37~39℃)을 사용하였고, 본지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세척을 원칙으로 하였다.

9) 田芝妍, 회화 문화재의 보존처리에 쓰이는 풀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龍仁大學校 藝術大學院 2002, 12).

- 책의 보존을 위해 書套와 冊匣을 제작한다.

수리를 마친 책은 보존을 위해 更紙로 만든 書衣에 바깥을 천으로 덮은 書套를 만들어 입히고, 오동나무로 冊匣을 만들어 책을 넣어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

- 마지막으로 이들 과정은 후일의 연구를 위해 모두 기록으로 남겨둔다.

조사과정 및 보존처리 과정 중에 생성된 사진 또는 관련 기록물은 보존처리 과정시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또한 후일 다른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의 수리자료로 원 소유자 또는 원 소유기관에게 반환될 때 보존 처리된 문화재와 함께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문화재를 수리할 때, 장점을 선택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점이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결점을 어떻게 보충해 갈 것인가하는 여러 가지 방침이 필요하다. 다음 절에서는 이들 수리방침에 따른 『金剛經三家解』의 단계별 보존처리 과정을 간단히 기술하고자 한다.

4.2 保存處理過程

『金剛經三家解』의 보존처리 과정은 1) 제1차 세척과정, 2) 판본 보완 및 보수 과정 3) 제2차 세척 및 보존처리 과정, 4) 재단 및 제책과정, 서투 및 표갑의 제작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계별 작업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4단계에 해당하는 재단 및 제책과정 서투 및 표갑의 제작 등은 전적의 보존처리 과정에서 일반적인 작업과정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1) 제1차 세척과정

『金剛經三家解』는 전체적으로 빗물의 누수에 의한 얼룩이 져 있고, 일부 장은 갈색으로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등 지질이 비교적 약화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솔을 이용한 건식세척은 불가능하므로 수리 전 미지근한 물을 이용한 1차 습식세척을 실시하였다. 세척은 2회 실시하는데, 1회는 넓고 부드러운 붓에 세척수를 듬뿍 묻혀 위로부터 가볍게 흘러내려 얼룩이나 오염물을 불리는 과정이며, 2회는 세척수에 불린 얼룩이나 오염물이 흘러내리도록 위로부터 가볍게 흘러내리는 과정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본지가 아주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척물 위에 세척수가 떨어짐으로서 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 세척물에서 세척수가 어느 정도 빠지면, 세척물을 놓은 바닥의 한지와 함께 작업대로 조심스럽게 옮긴 후 그 위에 다시 깨끗한 한지를 덮

어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가볍게 문질러 세척수를 흡수시키고, 이어 건조판에 붙여 말린다.

이상과 같이 1차 세척의 목적은 약화된 상태의 본지를 안정화시키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이물질들을 제거함으로써 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는 등 보수처리를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세척을 통해 얼룩과 오염물 등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빗물에 의한 얼룩과 오염물의 세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척수의 온도를 높이는 등 무리한 세척으로 인해 本紙의 古色 또는 墨의 濃淡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수리과정 가운데 세척과정은 매우 위험한 작업이라는 점을 거듭 명심해야 한다.

2) 판본 보수 과정

보수과정은 본지의 결실부위나 손상부분을 미리 준비한 補修紙를 이용하여 실제로 보완 및 보수하는 과정으로,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단계이다. 이 과정은 크게 본지의 구부러진 부위를 펴는 과정, 보수지를 이용한 보완 및 보수 과정 등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본지의 구부러진 부위를 펴는 과정은 本紙의 원형이 조금이라도 구부러져 변형이 있는 부분을 대나무 송곳 또는 대나무 칼을 이용하여 곧게 펴는 과정이다. 『金剛經三家解』는 발견 당시 내철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책의 書口 부분 즉, 질척되는 판심부분 및 상하단 부위가 부식과 손상이 심해 구부러진 곳이 많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원형이 변형된 부분과 구부러진 섬유소 한올 한올을 얼마만큼 곧게 펴는가에 따라 앞으로 수행되는 보수과정의 결과를 좌우하므로, 이 과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본지의 구부러진 곳을 곧게 펴는 작업이 완료되면, 스프레이로 물을 약간 뿌린 다음 그 위에 깨끗한 한지를 덮고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문질러 곧게 펴는데, 『金剛經三家解』는 밖으로 노출된 판심부위가 매우 약화된 상태로 솔에 무리한 힘을 가해 본지가 찢어지거나, 종이의 섬유소가 늘어날 수 있었으므로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였다.

다음 단계는 보수지를 이용한 실제 수리과정으로, 판심을 고정시키는 과정, 사면을 덧대는 보완과정, 부식 또는 손상으로 인한 결실부위의 보전과정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판심을 고정시키는 과정은 판의 중심을 잘 맞추어 이미 준비한 版心 補修紙를 이용하여 접착 고정시키는 작업으로 중심이 맞지 않을 경우 재단과정 뿐만 아니라 장정을 하기 위해 판심을 접었을 때 匡郭(版匡 또는 邊欄)이 비뚤어지기 때문에 아주 정밀을 요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판심이 붙어 있을 경우 版心 補修紙 크기로 본지 판심부위에 풀을 칠한 후 판심 보수지를 붙이고 깨끗한 한지로 덮어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 1차 접착 시킨다 이어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두드려 빈틈없이 2차 접착시킨 다음 접착면의 섬유소가 비뚤어져 있으면 곁에 따라 맞추고, 글씨 등의 과편이 비뚤어졌을 경우 반드시 맞추는 작업을 하여 완성시킨다. 『金剛經三家解』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판심의 下魚尾 부분이 역삼각형, 원형, 타원형 형태로 박락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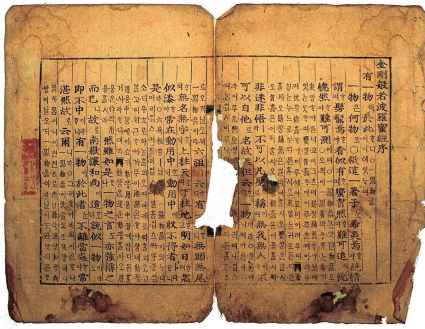
판심의 접힌 부분이 붙어있기 때문에, 박락부분을 제외하고 본지의 뒷면을 版心 補完紙를 이용하여 고정작업을 실시하였고, 판심을 고정시킨 후 글씨가 앞면으로 나오도록 본지를 다시 뒤집어 접착면의 섬유소나 글씨 등의 파편이 비뚤어졌을 경우 반드시 맞추는 작업을 하였다.

판심의 고정작업이 끝나면 本紙의 上下左右를 四面 補完紙를 이용하여 뒷대는 보완작업을 한다. 장정형태가 대부분 線裝 形態인 고전적은 사면이 밖으로 노출되어 弱化되기 쉽기 때문에 四面 補完紙를 이용한 보완작업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사면 보완지를 덧댐으로서 본지가 밖으로 직접 노출되는 점을 방지하는 장점도 갖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필연적으로 원형의 크기가 약간 커질 수 있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상하, 좌우 사면의 보완은 최소한의 크기로 해야 한다. 이 과정은 본지의 사면을 약 1mm 정도의 폭으로 풀을 칠하고, 본지와 보완지가 약 1mm정도 겹치게 하여 접착시킨 후, 四面 補完紙의 섬유소를 본지의 접착면에 붙이는데 접착 방향은 上·下面은 본지의 종이결과 같은 방향으로, 左·右面은 본지의 종이결과 엇갈리게 접착시킨다. 이러한 이유는 자연환경에 따라 본지의 수축 또는 이완이 발생하더라도 사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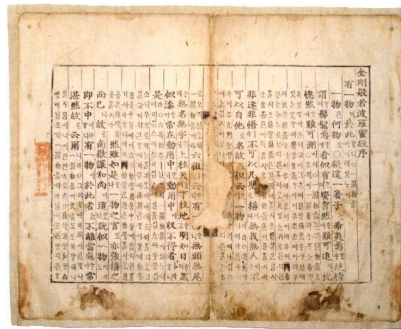
사면 보완작업이 끝나면 마지막 과정으로 부식 또는 손상에 의한 박락 부위의 보전과정이 이루어진다.¹⁰⁾ 『金剛經三家解』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판심의 下魚尾 부분과 下魚尾부터 書根 부분이 박락되어 있는데, 결손 부위를 보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지 뒷면의 결손 부위를 따라 약 1mm 정도 폭으로 풀을 칠한 후 미리 준비한 보수지를 本紙의 종이결과 같은 방향으로 맞추어 1차 접착시키고, 접착된 결손 부위를 따라 섬유소가 풀어나오도록 여분의 보수지를 조심스럽게 뜯어낸다.¹¹⁾ 풀어진 섬유소를 다시 본지에 접착시킨 후, 앞면이 나오도록 뒤집어 본지의 섬유소가 비뚤어져 있을 경우 한을 한을 반듯하게 풀어 접착시키고, 마지막으로 윗면에 깨끗한 한지를 덮은 후 작업용 붓으로 가볍게 두드려 2차 접착시켜 보전과정을 마무리한다.

10) 결실 부분을 보강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찢어지거나 구멍 난 종이를 그대로 두고 계속 사용할 경우 그 결손 부분과 본지의 경계 부분에서 힘의 균형이 깨어져 파손되기 시작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손 부분을 다른 종이, 즉 본지의 강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약한 정도의 종이를 매꾸어 원래의 한장의 종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이때 짜집기용 종이는 강도 뿐 아니라, 미관적인 면에서도 충분히 고려되어 본지의 색과 섬유 종류까지도 비슷하여야 하며, 연결 부분이 2중으로 되지 말아야 하고, 두께는 일정하게 마감되어야 한다. (박지선, “문서의 복원,” 기록보존, 제 8호 (충무처정부기록보존소, 1995), pp.19-21.]

11) 종이 편이 작아 손으로 작업이 어려울 경우 핀셋을 사용하면 작업이 용이해진다.



<그림 8> 보수 전(1장)



<그림 9> 보수 후(1장)



<그림 10> 보수 전(57장)



<그림 11> 보수 후(57장)

3) 제2차 세척 및 제책과정

제2차 세척은 판본보수과정에서 사용된 풀 등의 이물질과 빗물에 의한 얼룩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세척은 3회 실시하였다. 1회는 얼룩이나 오염물을 불리는 과정이고 2회는 오염이 심한 부위에 직접 세척수를 투여하는 과정이며, 3회는 세척수에 불린 얼룩이나 오염물이 흘러내리도록 세척수를 위로부터 가볍게 흘러내리는 과정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오염이 심한 부위에 직접 세척수를 투여하는 2번째 과정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세척물 위에는 세척수가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한다. 세척물에서 세척수가 어느 정도 빠지면 넓은 작업대 위로 옮긴 후 그 위에 깨끗한 한지를 덮어 부드러운 붓을 이용하여 가볍게 문질러 세척수를 흡수한다. 다시 거꾸러 뒤집어 처음 깔아 놓은 한지를 제거한 후 혹시 구부러진 곳이 있으면 부드러운 솔을 이용하여 판본을 곧게 편 다음, 그 위에 다시 깨끗한 한지를 덮고 가볍게 문질러 접착시킨 후 건조판에 붙여 말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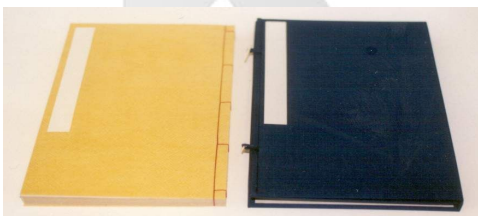
이후 과정은 건조관에서 떼어낸 후 장정을 하기 위해 본지를 재단하는 과정과 본지의 구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얇고 길긴 닥지를 삽입한 후 몸통을 꿰매는 內綴 작업과 책의 장정과정, 그리고 완성된 책을 보호하기 위해 書套와 冊匣 제작 과정이 있으나, 이들 과정은 전적의 보존처리에서 일반적인 과정에 해당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재단 작업은 본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원래의 크기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본지의 구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삽입하는 닥지는 최대한 얇아야 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아무리 얇은 닥지를 삽입하더라도 제책시 원래의 책 두께보다 두꺼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金剛經三家解』를 보수한 결과, 수리 전 책의 외형은 가로 25.3cm, 세로 38.9cm, 두께 1.5cm



<그림 12> 보수 완료된 『金剛經三家解』



<그림 13> 보수 완료된 『金剛經三家解』



<그림 14> 書套



<그림 15> 冊匣

판본 58張(본문 57장, 보조지 1장)이었으나, 수리 후 가로 25.8cm, 세로 39.4cm, 책의 두께는 1.9cm, 판본 64張(본문 57장, 보조지 1장, 겉표지 앞과 뒤 각1장, 보호지 앞과 뒤 각2장)로 가로 0.5cm, 세로 0.5cm, 두께 0.4cm, 판본 6장이 증가하는 등의 외형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한편 몸통을 꿰매는 내철 작업은 원래의 위치에 똑같이 4개의 구멍을 뚫어 종이심으로 내철하였고, 線裝 역시 槐子汁으로 黃染한 표지를 마련하여 책의 몸통에 대고 원래의 위치에 5개의 구멍을 뚫어 붉은 비단실로 綴하는 黃紙紅絲에 의한 五針眼訂法을 택하였다.

5. 結論 및 提言

이상과 같이 호법·호국·호악의 존재로서 中宗 10년(1515)에 조성된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의 복장불서 및 보물 제745-9호로 지정된 『金剛經三家解』를 대상으로 서지학의 관점에서 지류문화재의 보수 및 보존처리 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흥 보림사의 사천왕상은 호법·호국·호악의 존재로서 中宗 10년(1515)에 조성되었고, 이후 현종 9년(1668)과 正祖 1년(1777) 2차에 걸쳐 중수되었으며, 1954년 1971년 1995년 2001년 4차에 걸쳐 보수공사 및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불서의 복장 시기를 밝혀보기 위해 발견된 불서의 간행시기를 분석해 본 결과, 사천왕상의 2차 중수가 있었던 정조 1년(1777)에 복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사천왕상의 복장불서는 1971, 1995, 2001년 등 모두 3차에 걸쳐 발견, 조사되었는 바, 1차 때 몸통에서 발견된 불서는 체계적인 정리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은 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2차 때는 팔과 다리 부분에서 48종(판본의 중수는 125종) 203책이 발견되었고, 3차 때는 무릎아래에서 29종 145책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넷째, 보존처리 전 『金剛經三家解』의 형태적 특징은 겉표지가 없고, 종이심으로 內綴만 되어 있는 상태이며, 책의 크기는 가로 25.3cm, 세로 38.9cm, 두께 1.5cm, 전체 면수는 58張, 紙質은 황갈색의 蕙精紙로 확인되었다. 책의 장정을 위해 뚫어 놓은 침안의 간격은 8.8~9cm, 書背와 침안과의 간격은 1.5cm이고, 책의 내철 간격은 6.8cm, 10.7cm, 9.4cm, 9.6cm, 2.4cm, 書背와 내철 구멍간의 간격은 1cm로 침안과 침안 사이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철 구멍은 침안 보다 바깥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보존처리 전 『金剛經三家解』의 상태는 四天王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사천왕상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책의 바깥부분에 해당하는 장은 비교적 오염이 심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일부 장은 갈색으로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전체적으로 版心の 下魚尾와 書根 부분이 일정한 모양으로 박락 현상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金剛經三家解』의 보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수리방침의 주안점은 本紙의 현상 유지를 우선원칙으로 삼되, 반드시 후세에 재수리가 가능하도록 수리방침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방침을 정하였다. 보존처리 과정은 1) 제1차 세척과정, 2) 판본 보완 및 보수 과정, 3) 제2차 세척 및 보존처리 과정, 4) 재단 및 제책과정, 서투 및 표감의 제작 등으로 나누어 실행하였다.

일곱째, 『金剛經三家解』의 수리 결과, 수리 전 책의 외형은 가로 25.3cm, 세로 38.9cm, 두께 1.5cm, 판본 58張(본문 57장, 보조지 1장)이었으나, 수리 후 가로 25.8cm, 세로 39.4cm, 책의 두께는 1.9cm, 판본 64張(본문 57장, 보조지 1장, 겉표지 앞과 뒤 각 1장, 보호지 앞과 뒤 각 2장)로 가로 0.5cm, 세로 0.5cm, 두께 0.4cm, 판본 6장이 증가하는 등의 외형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마지막으로 장흥 보림사에서 발견된 복장불서의 보존처리 과정에 참여한 서지학 전공자로서 향후 지류문화재의 보존처리 분야에 제언하고자 하는 점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에 상당량이 지류문화재임을 인식할 때, 지류문화재의 보존 처리는 수년동안 고도의 경험적 기술을 축적한 보존처리 전문가, 우리 고유의 전통종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숙련된 종이 전문제작자, 그리고 책에 대해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서지학자 및 관련 연구자 등의 협력 또는 공동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협동 시스템을 위해서는 이들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협력 작업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제도적으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희태, 최인선, 양기수 역주 ; 고경 감수. 역주 보림사 중창기. 장흥문화원, 2001.
- 박지선. “문서의 복원.” 기록보존, 제8호 (총무처정부기록보존소, 1995), pp.11-23.
- 朴智善. “東洋繪畫·書籍의 保存修理에 關하여.” 美術史學研究, 通卷 194·195(1992, 9), pp.31-54.
- 사와다 마사아키(澤田正昭). 문화재보존과학개설, 金聖範, 鄭光龍 共譯 서울: 서경문화사, 2000.
- 宋日基. “長興 寶林寺 四天王像의 腹藏佛書考.” 伽山學報, 第6號(1997, 6), pp.87-125.
- 송일기, 김희태.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 복장불서 조사보고.” 지방문화재 지정조사 보고서(2), 전라남도(2003, 7), pp.3-39.
- 田芝妍. 회화 문화재의 보존처리에 쓰이는 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龍仁大學校 藝術大學院, 2002, 12.
- 曹炯鎭. “古書印出用 冊紙의 實驗的 研究.” 書誌學研究, 第27集(2004, 6), pp.63-89.
-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2002.
- 崔仁善. 迦智山 寶林寺. 順天大學校博物館·迦智山 寶林寺, 1995.
- 최인선, 김희태, 양기수. 보림사. 학연문화사, 2002.